

# 새 활자 시대 초기의 한글 활자에 대한 연구

號 사이즈 한글 활자의 제작 배경을 중심으로

박지훈

무사시노미술대학

# Research into Hangul type in the early modern era

Cantered around the development background of Ho size Hangul type

Park Ji-hoon

Musashino Art University

키워드

치수, 비례체계, 모듈, 비트루비우스

measurement, canon of proportions, module, Vitruvius

투고일 2011.5.13

심사기간 2011.5.25-31

게재확정일 2011.6.10

## 차례

1. 서론
2. 시대적 배경
  3. 1호 활자(Double Pica, 8.55mm)
    - 3.1. '최지혁체' 1호 한글 활자
    - 3.2. '독본체' 1호 한글 활자
  4. 2호 활자(Double Small Pica, 7.5mm)
    - 4.1. '최지혁체' 2호 한글 활자
    - 4.2. 아오야마진행당의 2호 한글 활자
  5. 3호 활자(Two-line Brevier, 5.6mm)
    - 5.1. '성서체' 3호 한글 활자
    - 5.2. 『조선어독본』의 3호 한글 활자
  6. 4호 활자(Three-line Diamond, 4.8mm)  
'한성체' 4호 한글 활자
  7. 5호 활자(Small Pica, 3.7mm)
    - 7.1. '최지혁체' 5호 한글 활자
    - 7.2. 츠키지 활판제조소의 5호 한글 활자
    - 7.3. 초전 활판제조소의 5호 한글 활자
    - 7.4. 수영사의 5호 한글 활자
  8. 6호 활자(2.8mm)  
『노동야학독본』의 6호 한글 활자

주

참고문헌

요약

Abstract

## I. — 서론

현재의 한글은 디지털이라는 기술력과 조화를 이루며, 보다 창제 원리에 근접한 활용이 가능케 되었다. 사실상 국내의 모든 미디어에 한글전용이 실행되고 있으며, 우수한 알파벳으로서의 가능성은 국제사회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같은 한글 사용 비중의 확대와 더불어 한글 글꼴 변천사의 이해 역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이에 반해 현재의 한글 글꼴 연구는 새로운 미디어에 적응을 위한 연구에 비해 근대 이후의 한글 연구가 소홀한 경향이 적지 않다. 특히 새 활자 시대의 한글에 관한 연구는 과거의 일부 선구자들에 의한 연구 결과가 연구자들 사이에 그대로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라 많은 부분에 모순점과 의문점이 남는다. 또한, 성서제작을 목적으로한 활자의 제작이 대부분이어서, 문자 연구가 아닌 종교 학계의 연구결과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점 또한 적잖은 문제점이라 본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잘 알려진 새 활자 시대의 한글 활자 7종 '최지혁체(1, 2, 5호)', '성서체(3호)', '한성체(4호)', '독본체(1호)', 의 5호 활자의 제작 배경을 재검토하고, 지금까지 타이포그래피 학계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 활자 시대의 한글 활자 이하 5종을 소개한다.

- 아오야마진행당(靑山進行堂)의 2호 활자
- 조선어독본(朝鮮語讀本)의 3호 활자
- 초전 활판제조소(初田活版製造所)의 5호 활자
- 수영사(秀英舍)의 5호 활자
- 노동야학독본(勞動夜學讀本)의 6호 활자

이상 새 활자 시대 초기의 성경 및 교과서, 근대식 활자 제조소에서 발행된 활자 견본집의 내용을 중심으로 근대 초기 한글 활자의 제작/유통 배경과 형태의 다양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 2. — 시대적 배경

한글 새 활자란 19세기 말엽 개화기에 도입된 대표적 서구문물의 하나로, 풀어 말하면 서구식 방법으로 주조된 한글 연활자 및 이를 이용한 활판 인쇄술을 일컫는다.

이 신식 활자들의 도입에는 선교사들에 의한 종교활동이 주목적으로 작용하였다. 사회적 배경으로는 외부 종교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어, 국내에서의 정상적 선교활동이 불가능한 시기였다. 이에 선교활동에는 일명 ‘문서선교’라는 개념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대량의 성경 제작이 가능한 신식 매체의 도입을 필요로 했다. 특히 일반인들과 여인들도 접할 수 있는 한글 활자의 제작이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였다.

새 한글 활자를 이용한 성서 제작활동은 일본의 요코하마(橫濱)와 만주 일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가톨릭 세력을 중심으로한 인쇄활동이 요코하마에서 성행한 반면, 만주지역에는 프로테스탄트 세력이 정착되어 선교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한반도가 아닌 주변국을 거점으로 성서가 제작되었으며, 인쇄에 사용된 활자는 대부분이 요코하마 히라노활판(平野活版)에서 제조되었다.<sup>91</sup> 일본에서 대부분 활자를 제작했다고 해서 한글 활자 제작의 모든 과정을 일본의 회사에서 도맡아 한 것은 아니다. 조선인이 쓴 자본(字本)을 일본의 종자(種字) 조각공이 조각하여 활자 자모(字母)를 만들어 주조하거나, 조선인에 의한 자본과 종자 활자를 바탕으로 일본의 회사에서 자모를 만들고 주조한 예도 있었으며, 자모만을 일본의 회사로부터 도입하여 국내에서 주조를 하는 경향도 있었다.

이처럼 초기의 한글 새 활자는 주로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인쇄활동이 이루어졌으며, 1886년 한불조약에 의해 신교의 자유가 허용됨에 따라 성서제작에 활용되었던 다종의 한글 활자들과 신식 인쇄술이 국내로 반입되었다. 국내에 도입된 한글 연활자는 종교활동 기관 외의 일반 인쇄기관에도 폭넓게 분포되었고, 1890년대에 들어서는 국내에서도 한글 활자를 주조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기술을 갖추게 된다.

참고로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호(號)란, ‘point’, ‘mm’ 등과 같은 활자 치수의 고유 단위가 아니라 서구의 활자가 동양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붙은 활자 크기의 순번이라 설명해 둔다.

\* 각 호 수 활자 간의 구분을 위해 (C), (T), (S) 등의 머리글자를 표기하였다.

## 3. — 1호 활자(Double Pica, 8.55mm)

현재, 새 활자 시대 초기의 1호 한글 활자로는 총 두 종이 소개되어 있다. 최지혁체 1호 활자(C)로 알려 있는 해서체형 한글 활자와 조선총독부 발행의 『조선어독본(朝鮮語讀本)』에 주로 등장하며 일명 독본체라 불리는 교과서체 한글 활자(T)가 그것이다.

### 3.1. ‘최지혁체’ 1호 한글 활자

이중 최초의 한글 큰 활자라면 1880년대 초에 제작된 최지혁(崔智赫, 요한) 자본의 한글 연활자로 알려졌으나 조선어독본의 1호 활자를 최지혁체 1호 활자로 소개하는 등, 지금까지의 각종 논문, 전문서적에서 소개하고 있는 최지혁체 1호 활자(C)는 이론상의 유명함과 달리 실제의 존재 여부가 명확치 않다. 또한, 국내 가톨릭 서적의 출판 역사를 다룬 전문 자료들에서도 ‘최지혁의 자본을 바탕으로 요코하마에서 새 활자를 제조, 『한불자언』, 『한어문전』 등을 인쇄했으며, 최지혁의 글씨를 토대로 한 대, 중, 소의 한글이 있었다.’<sup>92</sup>라 기록하고 있으나, 정확한 호 수, 제작자, 사용 문헌에 관한 명확한 정보를 찾기는 어렵다.

현재 타이포그래피 학계에 알려진 최지혁체 1호 활자(큰 활자)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 1880년대에 제작된 가톨릭 서적, 또는 이전의 목판본을 새 활자로 다시 인쇄한 가톨릭 관련 서적을 중심으로 글꼴을 관찰했다.

『한불자언(韓佛字典)』(1880), 『한어문전(韓語文典)』(1881), 『턴슈성교공과(天主聖教功課)』(1881), 『신명초행(神命初行)』(1882),

『성교감략』(1883), 『턴당직로(天堂直路)』(1884), 『성상경』(1886), 『턴주성교공과(天主聖教功課)』(1887), 『성모성월』(1887), 『성요셉성월』(1887), 『유교요지』(1887), 『천주성교예규』(1887) 등을 중심으로 본문 글꼴사용에 주목하였으나, 눈에 띄는 1호 크기의 한글 활자는 찾기어려웠다.

유력하게 생각했던 『한불자던』의 속표지 제목에 쓰인 한글은 본문에 쓰인 5호 글꼴과 매우 흡사하여 최지혁에 의한 자본임을 바로 알 수 있었으나, 1호 활자의 치수보다 훨씬 크며, ‘한’ ‘불’ ‘자’ ‘던’의 4자 이외에 같은 활자로 판단되는 글꼴의 쓰임이 발견되지 않는 점으로 실제 존재했던 활자라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1890년대 이후의 가톨릭 서적에 눈을 돌리면 최지혁체 2호 활자와 형태상의 일치도가 매우 높은 큰 사이즈의 한글 활자 한 종을 발견할 수 있다. 명동성당의 인쇄소에서 1892년에서 1897년에 걸쳐 총 9권 9책으로 제작된 『성경직해』에 사용된 한글 큰 활자에 주목하고 싶다. 『성경직해』에 사용된 글꼴 구성으로는 최지혁체 2호 글꼴이 본문 전체에 사용되고 있고, 목차와 각 장의 머리글에 큰 한글 활자가 사용되었다. 이 큰 한글 글꼴의 특징은 최지혁체 2호 해서체와 매우 흡사해, 지금까지 국내에서 언급해온 최지혁체 1호 활자란 『성경직해』에 사용된 해서체 큰 활자를 일컫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림1>

하지만, 최지혁체 2호 활자가 1881년 발행된 『턴주성교공과』에 등장하여 이후 발행된 모든 천주교 관련 서적의 본문용 활자로 사용되고 있는 점에 비해, 1878년에 생을 마감한 최지혁의 자본이 1892년 이후 활자로 등장했다고 보기에는 활자 제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도 쉽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또한, 최지혁의 글꼴로 확실시되는 5호 한글 활자와 자형의 조형성을 비교해도 동일인물의 필체라 보기 어려운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성경직해』에 등장하는 한글 큰 활자는 함께 조판된 최지혁체 2호 활자와 흡사한 붓글씨 글꼴로 초기의 새 활자 시대에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해서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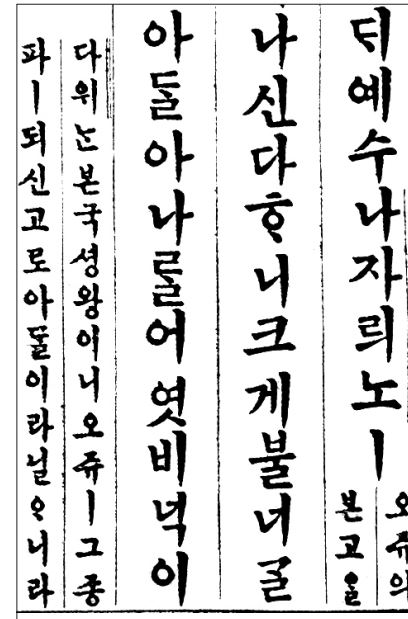


그림 1. 『성경직해』(1897)의 큰 한글 활자와 2호 최지혁체

활자의 하나이다. 글꼴의 세부적 표정에서는 다소 판각의 흔적이 눈에 띄어 이를 목활자라 소개하는 자료도 있었으나, 같은 글자들을 수집하여 형태의 일치도를 조사한 결과 주조에 의한 연활자임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 자형 상으로는 한글 붓글씨의 특징이 그대로 활자화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행서체에 가까운 획의 쓰임조차 발견할 수 있었지만, 이는 자본의 크기에 커짐에 따라 운필의 흐름이 반영된 결과라 생각된다.

본 활자는 약 32포인트로 엄밀히 말하자면 1호 활자(약 28point)보다 4point가량 큰 활자이다. 한 단계 위인 초호(初號)에 비해 12point나 작아, 호라는 규격으로 판단하기에는 치수상의 모순점이 드러난다.<sup>93</sup> 어떤 호의 규격에도 포함되지 않는 이 활자(C)는 새 활자 시대 초기의 성경에 등장할 뿐 근대식 활자가 정착됨에 따라 그 쓰임을 찾기가 어려워진다. 그 원인으로는 호 규격의 활자가 일반화되면서 규격화된 호 수 활자들과의

혼용이 어려운 결점으로 인해 지속된 쓰임은 힘들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자 활자를 모두 일본에서 들여오던 배경으로부터도 호수 한자 활자와 함께 조판하기 어려웠던 점은 규격 외의 활자가 일반화될 수 없었던 결정적 이유라 볼 수 있겠다.

### 3.2. '독본체' 1호 한글 활자

또 다른 1호 한글 활자는 일명 독본체라 불리는 교과서체다. <그림2> 많은 전문서가 1915년 조선총독부 편찬의 『보통학교 조선어 독본』에 처음 등장한 글꼴로 소개하고 있으나, 율희 3년(1909) 학부 편찬 한국정부인쇄국에서 인쇄한 『보통학교 국어 독본』에서 같은 글꼴의 원형을 볼 수 있다. <그림3>

독본체는 당시의 새 활자들과 달리 인서체 활자라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크다. 기존의 해서체형 글꼴이 아닌 현재의 본문 글꼴에서 볼 수 있는 양식화된 구조로 표현되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글꼴 양식을 제안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통일된 획의 폭으로 전체적 글꼴의 표정에 통일감이 계산된 점과 자형에 있어 조형적, 기하학적 특징이 계획된 점이다. 이상의 특징으로 본다면, 현재 타이포그래피에서 언급하는 학술적 의미로서의 '글꼴'이라는 개념에 가장 근접한 초기 한글의 새 활자라 할 수 있다.<sup>94</sup> 특히 새 활자로는 국내 처음으로 정식 패밀리화 된 글꼴로서 같은 조선어 독본에 등장하는 3호 활자와 같은 디자인 콘셉트로 제작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sup>95</sup> 독본체는 초기의 글꼴 이후 수정작업이 이루어져, 후기로 갈수록 더욱 양식적인 표정이 명확해진다.

1호 독본체는 실존했던 유일한 1호 크기의 한글 활자로서 주로 저학년의 교과서에 등장하며, 교과서 외의 매체에서는 사용된 예가 보이지 않는다. 초기 독본체 활자의 제작에 관한 구체적 단서는 전해지지 않지만, 판권의 내용으로부터 인쇄국이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인쇄국에서 자체적으로 자본을 제작했을 가능성이 크나 종자의 조각 및 자모의 제작에 관해서는 일본 활자제조소의 영향이 있었다 본다.

새 활자 시대의 큰 활자로는 1호 활자 외에도 초호 활자(약 44point)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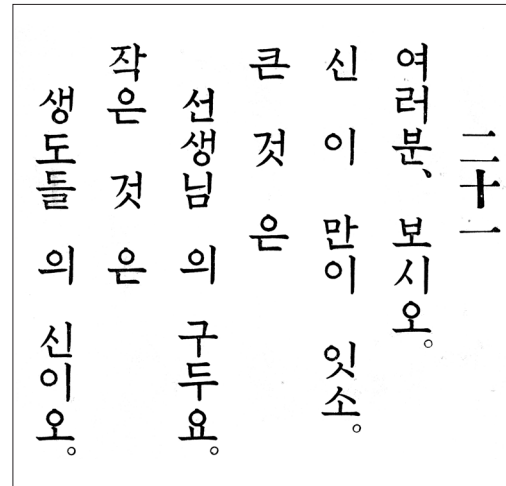


그림 2.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1930)의 1호 독본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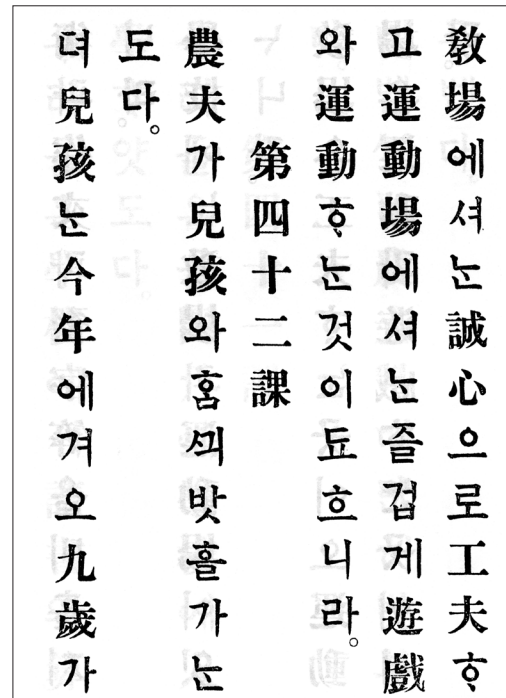


그림 3.  
『보통학교 국어 독본』  
(1909)의 교과서체.  
(발체 『한국 개화기 교과서  
총서』)

찾아 볼 수 있다. 주로 성경 표지의 제목용으로만 등장하고 본문에서는 사용된 예를 볼 수 없으나 서로 다른 성경에서 같은 글꼴이 등장하는 점으로 활자에 의한 인쇄임을 알 수 있다. 인쇄된 자료의 부족으로 완벽한 한 세트의 활자였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인쇄 상태로 볼 때 목활자일 가능성이 크다.

#### 4. — 2호 활자(Double Small Pica, 7.5mm)

새 활자 시대 초기의 2호 한글 활자는 총 2종류를 찾을 수 있다.

최지혁체라 불리는 2호 활자(C)와 아오아마진행당(靑山進行堂)<sup>66</sup>의 활자 견본집에 등장하는 ‘2호 조선국 언문(貳號朝鮮國諺文)’ 활자(A)이다.

##### 4.1. ‘최지혁체’ 2호 한글 활자

최지혁체 2호 활자로 알려진 중간 크기의 해서체 활자 역시 최지혁에 의한 글꼴이라는 명확한 물증은 찾을 수 없어, 본 논문에서는 최지혁 글꼴로 단정 내리지 못한 활자이다. 이는 최지혁의 자본이란 확실한 기록이 있는 『한불자던』의 5호 활자(C)와 비교하면 그 차이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2호 활자(C)는 앞서 말한 『성경직해』의 1호 활자(C)와 매우 높은 유사성을 띠고 있으나, 획의 표정과 전체적 자형을 중심으로 볼 때 5호 활자(C)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띤다. 5호 활자가 비교적 작은 크기인 점을 고려하면, 판각 상의 난점으로 인해 글꼴의 완성도에도 영향이 있었다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한불자던』의 타이틀로 쓰인 큰 치수의 한글은 5호 활자(C)가 가진 특징을 그대로 보이고 있어 활자 크기에 따른 판각작업이 글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림4> 더욱이 이 2호 활자(C)는 최지혁의 5호 활자와 같은 히라노활판에서 제작되었는데, 당시 본 회사는 아주 작은 7호 크기의 한자 활자조차 제작/판매하고 있을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다. 같은 제작 공정에서 이렇게까지 조형적 차이가 보이는 점으로도 1호 활자(C)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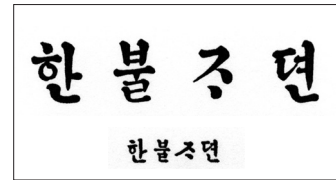


그림 4. 『한불자던』(1880)의 제목용 한글과 5호 최지혁체

2호 활자(C)의 자본을 만든이가 5호 활자(C)의 자본을 제작한 최지혁이라는 의견에는 역시 의문이 남는다.<sup>97</sup>

2호 활자(C)는 육필에 의한 붓글씨 형 활자로 초기 새 활자 중 가장 많이 사용된 한글 활자의 하나이다. 특히 초기 가톨릭 계열의 간행물과 개화기 이후의 근대 교과서에 본문용 글꼴로 주로 사용되었으며, 해방 후의 교과서에서도 그 쓰임이 눈에 띈다. 제조된 연도는 확인할 수 없으나, 1881년 판의 『천주성교공과』에 본 활자가 사용되고 있어 본 활자의 제작 연대는 1880년에서 1881년 사이로 추정되며 당시 천주교도의 활동 지역으로부터 일본 요코하마의 히라노활판에서 제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츠키지 활판제조소(히라노활판의 후신)에서 발간한 활자 견본집에서 이 2호 활자를 찾아볼 수 있다. 국내에는 1886년 이후 도입되어 근대 한글 서적의 대표적인 글꼴로 자리잡혔다. <그림5>

2호 활자(C)의 한글은 세로 폭에 비해 가로 폭이 좁게 설계되었으며, 활자 사이즈 내에 여백을 많이 두고 있어 자간 없이 조판해도 글자 간의 공간이 넉넉히 설정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육필의 특징이 강하여, 문자의 구성에 따라 세로모임 글자와 가로모임 글자의 구조가 명확히 구분된다.

2호 활자(C)는 국내에 반입되어 주조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초기의 형태로부터 몇 차례에 걸친 보수 흔적을 찾을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글꼴의 전체적 특징상 눈에 띄는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 5. — 3호 활자(Two-line Brevier, 5.6mm)

새 활자 시대의 3호 활자로는 성서체라 불리는 한글 활자(S)와 조선어 독본에 등장하는 3호 교과서체 활자(K)가 있다.

일부의 전문 자료에 의하면 최지혁에 의한 3호 활자가 제조되었다는 기록을 볼 수 있으나, 프로테스탄트 계열의 3호 성서체 외에 가톨릭계에서는 3호 활자가 사용된 인쇄물을 찾을 수 없다.

### 5.1. '성서체' 3호 한글 활자

새 활자 시대의 한글 활자 중에서도 성서체로 알려진 3호 활자에 대해서는 타이포그래피 학계의 연구보다 국내 프로테스탄트의 역사연구 분야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그림5>

성서체는 만주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던 영국 장로교의 선교사 존 로스(John Ross)와 매킨타이어(Mecintyre)가 서상륜(徐相崙), 이응찬(李應贊) 등의 도움으로 번역하여 제작한 『누가복음』(1882), 『요한복음』(1882)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국내의 강한 통상수교거부정책에 의해 만주에 선교활동의 거점을 마련한 프로테스탄트 세력은 1880년 스코틀랜드 성서 공회와 영국 성서 공회로부터 한국어판 성경의 제작비를 현금받으며 상해에서 인쇄기 2대를 구매, 만주 심양(瀋陽)에 활판 인쇄 시설을 갖추었다. -이는 훗날 문광서원(文光書院)의 모태가 되었다- 또한, 한글 활자 제작에 필요한 목활자(종자)를 일본 주재 스코틀랜드 성서 공회의 총무인 릴리(Robert Lilley)목사에게 보내어 35,563개(4천여 자)의 한글 연활자가 주조되었다. 이 활자는 요코하마의 히라노활판에서 주조되어 1881년 7월 만주 심양으로 이송되었다.

로스는 이 활자를 이용한 본격적인 성서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실험인쇄로서 소책자 『예수성교문답』, 『예수성교요령』을 제작한 바 있어, 본 3호 활자(S)가 처음 사용된 성서는 이상의 두 소책자가 제작된 1881년 10월로 기록할 수 있다.

한 가지 의문이 남는 점은 일본인 호사코 시게카츠(寶迫繁勝)에 의해 1881년 1월 부산에서 인쇄된 『교린수지(交隣須知)』에 본 활자와 닮은 활자가 사용되었는데, 비교 결과 성서체와 같은 활자임을 알 수 있었다. 이 3호 활자(S)가 요코하마로부터 심양으로 납품된 시기가 7월일에 비해 이미 1월에 같은 활자를 이용한 인쇄물이 부산에서 제작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잖은 의문을 느낀다.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적어도 1880년 말경에는 이 3호 활자(S)가 제작되어 있었다는 점이며, 스코틀랜드 성서 공회와 영국 성서 공회로부터 한국어판 성경의 제작비를 현금받게 된 1880년 이전부터 본 활자의 제작 작업은 시작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9)</sup>

본 한글 3호 활자(S)의 자본을 제작한 이는 이응찬, 종자의 조각을 한 인물은 서상륜으로 알려졌으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조선인 정청송에 의한 조판으로 3천 부가 인쇄되어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 분포되었다.

성서체는 조형적 측면으로 볼 때 결코 호평할 수는 없는 자형을 띠고 있다. 당시의 새 활자체들과 비교할 때 붓글씨의 느낌을 전혀 찾을 수 없고, 판각이 서투리 글꼴 상에서 획이라는 개념을 느끼기가 어렵다. 얇은 획의 효과로 글꼴 내의 공간이 확보되어 일반 3호 치수보다 크게 보이며, 직선적이고 좌우 대칭된 형태로부터 돌출체와도 같은 인상을 느끼게 한다. 전체적으로 기하학적 특징이 강한 개성적 글꼴이라 할 수 있다.

이 3호 활자(S)는 이후에도 각종 성서의 본문용 활자로 활용되었으며, 그 외에도 일반 서적의 목차, 소 타이틀 등의 비 본문용으로 종종 등장한다.

### 5.2. 『조선어독본』의 3호 한글 활자

잘 알려진 3호 활자 성서체 외에, 새 활자 시대에는 1호 독본체와 같은 디자인으로 제작된 또 다른 3호 활자(K)가 존재한다. <그림7> 이 3호 활자는 다소 조형미가 떨어지는 성서체에 비해 비교적 높은 완성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 3호 활자(K)의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독본체로 알려진 1호 교과서체 활자와의 연관성이다. 1923년 조선총독부 발행으로 조선서적인쇄 주식회사에서 인쇄한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권I(普通學校 朝鮮語讀本

卷1』에는 1호(T)와 3호(K) 두 종의 활자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데, 실제로 두 글꼴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두 활자는 같은 디자인 콘셉트로 제작된 패밀리 활자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각각 1호(T)와 3호(K)로 인쇄된 동일 글자들을 컴퓨터 상에서 같은 크기로 맞추어 조합해본 결과 상당히 높은 형태상의 일치율을 보였으며, 사진식자로 인식될 정도로 높은 일치도를 보이는 글자도 있었다.

다음으로, 글자 중에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몇 자를 집중적으로 비교해 보기로 했다. 글자의 선별에는 개인적 의사의 개입을 피하고자, 먼저 3호 글꼴(K)에서만 특징적인 글자를 선별한 후, 동일 글자를 1호 글꼴(T)에서 찾아내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 중 몇 자를 소개한다. <그림8>

3호 활자(K)의 ‘님’ 자의 경우 ‘ㄴ’과 ‘丨’의 높이에 차이가 없고 ‘ㄹ’이 지나치게 왼편으로 치우쳐 있어 조형적으로 결코 좋은 형태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은 1호 활자(T)의 ‘님’ 자 에서도 고스란히 찾아볼 수 있었다. 두 활자의 ‘님’ 자를 같은 크기로 비교하면 단순히 육안으로만 봐서는 구분이 힘들 정도의 유사성을 가진다.

3호 활자(K)의 ‘교’ 자의 형태 또한 독특한 인상을 느낀다. ‘ㄴ’에 비해 ‘ㄱ’의 크기가 작으며, 길게 앞으로 나온 뒷줄기선과 ‘ㄴ’의 조화가 무리해서 끼워 맞춘 듯한 인상마저 들게 한다. 이러한 자형의 특징은 1호 활자(T)에서도 그대로 보이며, 세부적 표정에서는 오히려 1호 활자의 개정본과 같은 느낌조차 들게 한다.

3호 활자(K)의 ‘쳐’ 자의 경우 ‘츠’의 형태에 주목하고 싶다. ‘츠’의 가장 큰 특징은 꼭지가 수직으로 디자인되어 지붕의 가로획과 접해있는 점이다. ‘ㅎ’에서는 종종 볼 수 있으나 ‘츠’의 경우에는 희귀한 현상으로, 마치 모음 ‘ㅜ’의 밑에 ‘ㅅ’을 둔 것과 같은 불안정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을 1호 활자(T)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었다.

3호 활자(K)의 ‘싸’ 자는 ‘ㅍ’의 형태에 주목했다. ‘ㅍ’의 형태를 그대로 두 번 반복하고 있는 듯한 어설픈 형태를 띠고 있어, 기계적 느낌이 강하며 완성된 한 음소의 형태로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ㅍ’의 형태 역시 1호

활자(T)와의 높은 일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조선어독본에 사용된 1호 활자(T)와 3호 활자(K)는 같은 디자인 콘셉트로 제작되었으며, 당시 글꼴의 성향이었던 필서체 해서<sup>10</sup>와 달리 기획에 의한 인서체<sup>11</sup>임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활자의 크기만으로 치수를 나누던 초기의 활자와 달리 처음으로 글꼴이라는 개념을 의식함과 동시에 치수를 분류한 한글 활자란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이 3호 활자를 보유하고 있던 조선 서적인쇄 주식회사는 1호 활자(T)를 보유하고 있던 탁지부 인쇄국 후신 기관인 총독부 관방인쇄국의 후신 기관이었다. 따라서 1호 활자(T)와 3호 활자(K)는 같은 루트의 기관에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3호 활자(K)의 세부적 표정의 완성도로부터 1호 활자(T)의 글꼴이 정돈된 이후인 1910년대 중반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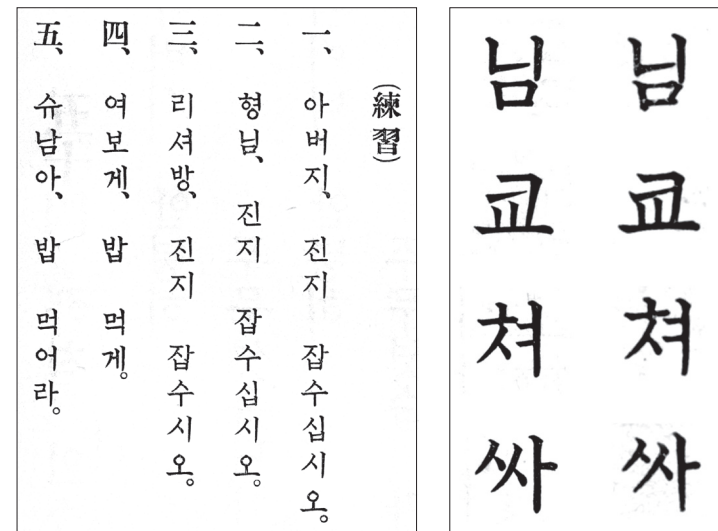


그림 7. 3호 교과서체 (왼쪽)

그림 8. 1호 독본체(왼쪽 열)와 3호 교과서체 (오른쪽 열)를 같은 사이즈로 맞추어 비교한 예 (오른쪽)

6. — 4호 활자(Three-line Diamond, 4.8mm)

‘한성체’ 4호 한글 활자

4호 활자로는 새 활자 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된 활자의 하나로 꼽히는 일명 한성체가 있다. <그림5> 비교적 작은 크기의 본문용 해서체 활자로서 출판물의 장르를 가리지 않고 어떤 분야의 인쇄물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해방 이후의 국어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등 근대기를 대표하는 한글 활자의 한 종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츠키지 활판제조소에서 제작되었으며, 국내에서는 『한성주보(漢城周報)』(1886)에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많은 전문자료가 본 활자의 제작 연도에 대해 한성주보가 발간된 1886년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이 활자가 제작된 목적은 한성주보의 인쇄가 아니었다. 한성주보가 발간되기 전 다른 서적에서 사용됐던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일본의 저명한 글꼴 디자이너이자 연구자인 고미야마 히로시(小宮山博史)는 자신의 저서 『일본어활자이야기(日本語の活字ものがたり)』에 츠키지 활판제조소의 활자 조각가 다케구치 쇼우타로(竹口正太郎)를 소개한다. 『인쇄세계(印刷世界)』 제1권 제2호(1910. 9. 20)의 직공표창록(職工表彰録)에 기록되어 있는 타케구치의 이력에는 ‘朝鮮文字를 製作’이라는 공적이 소개되어 있다. 이는 츠키지 활판제조소가 인쇄담당을 맡은 『메이지자전(明治字典)』(1885.5 초판)에 사용된 4호 한글 활자의 종자를 조각한 작업이라 고미야마씨는 설명한다. 조사결과 『메이지자전』에는 확실히 4호 한글 활자인 한성체가 사용되고 있었다. <그림9>

이보다도 앞선 1885년 2월, 이수정(李樹廷)의 번역으로 요코하마에서 출판된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에도 4호 크기의 한글 활자가 사용되었는데, 이 역시 한성체와 같은 활자임을 알 수 있어, 이 4호 크기의 한글 활자는 적어도 1885년 이전에 제작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성체가 일반적 본문용 활자로 자리잡힐 수 있었던 이유는 작은 크기이면서도 잘 정돈된 조형미라 설명할 수 있다. 글꼴의 균형이 약간 오른쪽 위로 틀린 전형적인 정사각틀 해서체이며, 글꼴의 가로세로 폭이

균일하여 조판 및 인쇄 상태에 따라서는 최지혁체 2호 활자보다도 우수한 가독성을 얻을 수 있다. 정형화된 정사각틀 해서체이면서 비교적 세로쓰기의 기능성이 잘 살아 있는 점 또한 한성체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한성체는 광복 후의 교과서에서도 등장하지만, 가로짜기 조판으로 인해 가독성에서 큰 손실을 보고 있다.

4호 크기의 활자는 본문용으로서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보다 많은 종류의 활자가 존재해도 이상하지 않지만, 현재 알 수 있는 새 활자 시대 초기의 한글 4호 활자는 한성체 한 종류에 그치고 있다. 한성체는 글꼴 명의 모태가 된 『한성주보』 외에도 같은 언론 매체인 『독립신문』, 『황성신문』, 『데국신문』 및 『소년』 등의 초기 잡지, 근대 교과서 등 매체를 가리지 않는 본문용 활자로서 폭넓은 분야에 활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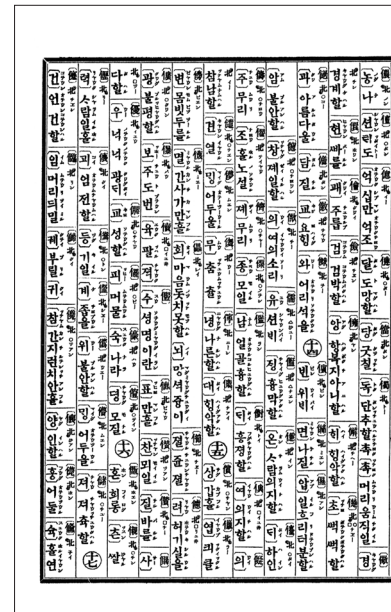


그림 9. 『메이지자전(明治字典)』(1885)에 사용된 4호 한성체. (발췌 『취진록』)

7. — 5호 활자(Small Pica, 3.7mm)

새 활자 시대 초기의 5호 한글 활자는 매우 많은 종류가 존재했으며, 서로 다른 5호 활자가 뒤섞여 사용되는 현상이 빈번하여 활자의 출처와 시기 파악에 많은 곤란이 따른다. 이 중 명확히 짚어낼 수 있는 5호 활자로는 초대(의) 새 활자로 한불자전에 사용된 최지혁의 5호 활자(C), 츠키지활판제조소의 활자 견본집에 소개된 5호 활자(T), 초전활판제조소(初田活版製造所)의 활자 견본집에 소개되는 5호 활자(CT), 그리고 수영사(秀英舍)<sup>12</sup>가 보유하고 있던 5호 활자(S)를 들 수 있다.

7.1. ‘최지혁체’ 5호 한글 활자

최지혁의 자본을 바탕으로 한 5호 활자(C)는 국내 최초의 한글 새 활자로 일본 요코하마의 히라노활판에서 제작되었다. <그림10>

1866년 조선을 탈출해 만주에 거주하고 있던 리델(Félix Clair Ridel)주교는 『한불자전』의 발간을 위해 1878년 일본으로 이동, 요코하마에서 만난 코스트(Coste, Eugene Jean George)신부에게 두 권의 어학교육서의 편찬 사업을 부탁했다.<sup>13</sup> 이에 요코하마 내의 프랑스 신문사였던 L'Écho du Japon(일본의 소리) 신문사에서 1880년 12월 『한불자전』을, 다음 해 5월에 『한어문전』을 발행해낸다. 여기에 사용된 활자는 최지혁의 자본으로 히라노활판에서 제작한 5호 활자(C)였다. 이후, 이 5호 활자(C)는 『성교감략』(1883), 『한영자전』(1890), 『신약전서』(1900) 『국한문 신약전서』(1906) 등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최지혁에 의한 5호 한글 활자는 최초의 한글 활자라는 명성에 비해 그다지 일반화되지 못한 활자였다. 자형의 조형적 면으로는 결코 좋은 글꼴이라 보기 어려워 새 활자 시대 초기 이후로는 사용 예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육필의 특징을 뚜렷이 볼 수 있으나 또 다른 최지혁체로 알려진 큰 활자, 중간 활자와 비교한다면 같은 해서체라 정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글꼴의 조형미가 떨어지며, 획의 표정 상에서는 그다지 붓의 특징을 찾을 수

없다.<sup>14</sup> 또한, 로마문자와의 혼용을 목적으로 가로쓰기용으로 기획한 점 역시 기존 해서체와 다른 표정을 느끼게 한다.<sup>15</sup>

앞서 이 5호 활자(C)가 새 활자 시대 초기 이후 자취를 감춘 이유로 조잡했던 글꼴의 조형성을 들었으나, 일반 한글 활자와 가장 큰 차이점은 로마 문자에 가까운 활자 구조를 띠고 있었던 점이다. 가로 폭에 비해 세로 폭이 넓은 장방형 활자로 세로쓰기에는 큰 장애를 안고 있었다. <그림11> 또한, 국내에 반입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재검토의 필요성을 느낀다. 실제로 『한영자전』, 『신약전서』 등 1900년대에 들어서도 본 활자의 사용이 눈에 띄지만, 모두 일본 요코하마에서 출판된 서적들임을 알 수 있다. 한불조약(1886) 이후 많은 한글 활자가 국내로 반입되었으나, 일본에서 인쇄된 출판물 중심으로 본 활자가 등장하는 점으로부터 정식적인 국내로의 반입이 있었는지, 반입 후 어떠한 인쇄물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관찰하고자 한다.

이 5호 활자(C)는 비록 조형적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근대식 연활자로 제조된 최초의 한글 활자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활자 연구의 학술적 의미를 넘어 한국 근대사의 역사적 증거물의 일부로서도 가치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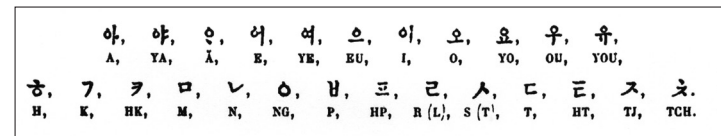


그림 10. 5호 최지혁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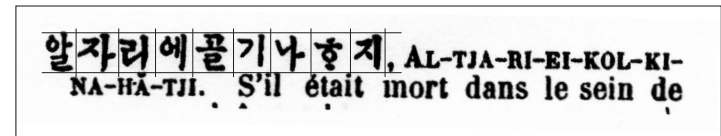


그림 11. 5호 최지혁체의 조판 구조

## 7.2. 츠키지 활판제조소의 5호 한글 활자

츠키지 활판제조소에서 발행된 활자 견본집 『JAPANESE, CHINESE and COREAN CHARACTERS』(1903)에는 2호 최지혁체, 3호 성서체, 4호 한성체와 와 함께 5호 사이즈의 한글 활자가 실려 있다. <그림5> 여기에 실린 5호 활자(T)는 당시 존재하던 5호 활자 중 비교적 조형적 완성도가 높은 활자이며, 어느 5호 활자들보다도 많은 분야에서 활용된 활자이다. 사실 새 활자 시대에 사용된 대부분의 5호 활자들은 붓글씨 글꼴이지만 자체의 형태로 볼 때 결코 해서체라 설명하기 어려운 조잡한 완성도에 그치고 있다. 반면 이 5호 활자(T)는 4호 성서체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비교적 균형 잡힌 해서체 형태를 갖추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4호 성서체와 매우 자형이 흡사하단 점이다. 20세기로 접어들어 많은 서적의 본문용으로 4호 성서체와 5호 활자(T)의 혼용이 늘며 작은 크기의 좋은 폐밀리 활자로 주목받는다. 실제로 앞서 소개한 아오야마진행당, 모리카와용문당 등 각종 활자 판매업소의 활자 견본집에서도 두 활자를 폐밀리 활자로 소개하고 있다. <그림12>

그러나 이 5호 활자(T) 본래의 제작 목적은 본문용 활자로의 사용이 아니었다. 새 활자 시대 초기의 5호 활자(T)는 대부분이 본문 외의 추가 설명, 한자의 음독 표기, 판권 내의 작은 글자용으로 사용되었으며 본 5호 활자(T) 역시 초기에는 본문 외의 쓰임만으로 활용되었다.

이 5호 활자(T)의 정확한 제작 연도, 제작자는 알 수 없으나 츠키지 활판제조소에서 제조되었으며 적어도 20세기 초에는 국내에 보급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유년필독(幼年必讀)』(1907), 『시편(詩篇)』(1908) 외에도 각종 근대 교과서 및 언론 매체 등에 등장하며, 보다 완성도가 높은 작은 치수 활자가 늘어남에 따라 조금씩 사용 빈도가 줄어들긴 하지만 해방 전까지 각종 인쇄물에 활발히 사용된다. 최지혁의 5호 활자에 비해 글꼴의 조형성이 뛰어난 점과 세로쓰기 조판이 비교적 좋은 짜임새를 갖는 점 역시 본 5호 활자(T)가 오랜 시간 활용될 수 있었던 이유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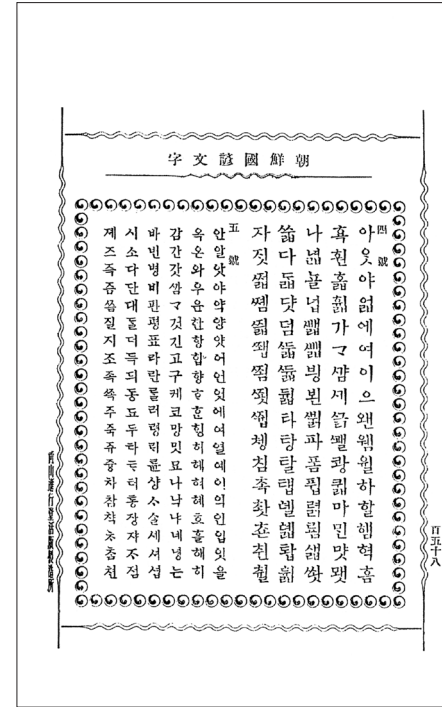


그림 12. 『부다무가사(富多無可思)』(1909) 오야마진행당의 활자 견본집. ‘조선국 언문자’ 오는쪽부터 4호 한성체, 5호 한글 활자(C). (발췌 『취진록』)

## 7.3. 초전 활판제조소의 5호 한글 활자

초전 활판제조소(初田活版製造所 京城소재)에서 출간한 활자 견본집 『5호 조선문 활자 견본장(伍號朝鮮文活字見本帳)』에서는 현재의 바탕체에 가장 근접해 있는 한글 글꼴을 소개하고 있다. <그림13> 총 18페이지로 구성된 활자 견본장에는 ‘전형자(全形字)’ 1,743자와 ‘마춤자’<sup>16</sup> 384자로 총 2,127자를 소개하고 있으며, ‘마춤자’는 ‘마춤자몸부’, ‘끝바침자부’, ‘중바침자부’, ‘쌍바침자부’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필자가 조사한 견본집에는 ‘전형자’ 39자, ‘마춤자’ 43자의 추가와 ‘씨’ 자를 삭제한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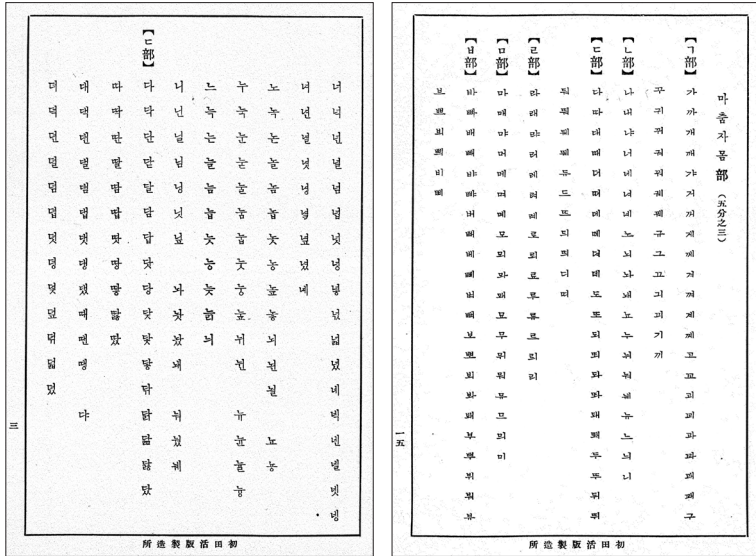


그림 13. 『5호 조선문 활자견본장(五號朝鮮文活字見本帳)』 초전 활판제조소의 활자견본장. (왼쪽)  
 그림 14. 초전 활판제조소의 활자견본장에 소개된 분합 활자 '마춤자모部'. (오른쪽)

내용의 낱장이 첫 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어, 총 자수는 2,208자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쉽게도 이 활자 견본장에는 관권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제작 연도의 파악이 곤란하다.<sup>17</sup> 견본장 구성의 전체적 특징으로는 1920년대 전후에 발간된 일본식 활자 견본집의 형식을 띠고 있다. 주목되는 부분은 기존의 활자 목록에 새로운 활자를 추가하고 소요가 적은 활자는 삭제하는 등 지속된 개발에 의해 정리된 활자란 점이다. 활판제조소의 설립시기 역시 명확하지 않으나 1925년 7월 30일자의 동아일보에 실린 '조선구기회(朝鮮救飢會)'의 명단에는 '초전 활판제조소 직공 일동'이라는 기사가 등장하며 기사에 실린 직공의 이름만으로도 15명에 달하고 있다. 이상을 고려하면 적어도 1920년대 이전부터 사업을 키워온 회사로 짐작할 수 있고, 1920년대에는 어느 정도 활자의 세트를 갖추고 있었다 생각된다.

회사의 소재지는 '경성 장곡천정 27'로 되어 있으나, 일본의 활판 제조소에서 사용하는 전형적 구조의 레이아웃 및 표지 디자인이 사용된 점, 그리고 회사명으로부터 일본 계열의 회사임을 알 수 있다.<sup>18</sup> 그러나 이 활자 견본집 내용의 구성으로부터 한글 구조에 상당히 익숙한 인물이 관여하고 있었으며, 글꼴의 조형적 완성도, 자연스러움으로 본다면 역시 한글 문화권에서 성장한 인물이 자본의 제작에 가담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본 견본장은 기존의 조선어 문장을 조판하는 방식의 견본집들과 달리 사전 방식으로 'ㄱ'에서 'ㅎ'까지의 순으로 글꼴을 소개하고 있어 한글에 대한 확실한 연구와 기획에 의해 제작된 활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분합식 한글 활자가 기획되었다는 점 역시 놀라운 일이다. <그림14>

이 활자 견본장에 실려 있는 한글 글꼴들은 박경서체로 알려진 한글 5호 글꼴과 매우 닮은 형태를 띠고 있다.<sup>19</sup> 육안으로는 전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이나 확대 분석 결과 획과 돌기의 위치, 자폭 등에서 작은 차이들을 볼 수 있었다. 그중 가장 눈에 띈 차이점은 'ㄴ'과 'ㅍ'의 형태이다. 초전 활판제조소 활자의 'ㄴ'은 전체적으로 세로획과 가로획의 굵기가 급격한 반면, 5호 박경서체의 'ㄴ'은 비교적 완곡한 굵기로 표현되었다. 특히 반침으로 쓰인 'ㄴ'의 형태에서는 더욱 큰 차이를 볼 수 있다. 또한, 초전활판제조소 활자의 'ㅍ'은 상 하의 가로획과 내리점이 분리되어 있고 삐침의 하단부만이 가로획과 접해있으나, 5호 박경서체는 내리점의 하단, 삐침의 상 하단부가 모두 가로획과 접해있다. 전체적 인상으로는 초전 활판제조소 활자의 세로모임 글자들은 비교적 자폭이 좁게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두 활자가 5호의 작은 크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인쇄 상태에 따른 미미한 표정 변화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인쇄물만으로 두 글꼴이 완벽히 다른 활자라 결론짓기에는 역시 부족함을 느낀다.

가장 궁금한 점은 제작 연대를 달리하는 두 글꼴이 이렇게까지 닮을 수 있는나이다. 고 김상문 동아출판사 대표는 1980년 8월 8일자 동아일보에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필자가 알기로는 국문활자체의 元祖는 해방 전의 朴景緒씨가 아닌가 한다. 朴씨가 「하쓰다」(初田) 活版제작소의 의뢰를 받아 일일이 手刻으로 만들어 보급시켰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서술하고 있어 두 글꼴의 존재를 동일한 결과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본 활자 견본장을 자료로 볼 경우 초전 활판제조소의 5호 활자와 현재 알려진 박경서체 5호 활자는 확실히 시대상의 배경이 다르며, 작은 부분이지만 글꼴의 형태로서도 객관적인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초전 활판제조소의 5호 활자와 박경서체 5호 활자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된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동일 인물의 결과물로 가정해두고 긴 시간에 걸친 수정의 반복으로 만들어진 글꼴임은 확실한 사실이며 현재 바탕체의 원형이 정립된 시기가 박경서체 등장인 1938년보다 많이 앞당겨진다는 점을 언급해 둘 수 있겠다.

#### 7.4. 수영사의 5호 한글 활자

수영사(秀英舍)가 1896년 발행한 활자 견본집 『활판견본첩 미완(活字見本帖 未完)』에는 ‘5호 조선문자(伍號朝鮮文字)’란 명칭의 5호 활자(S)가 소개되어 있다. <그림15> 이 5호 한글 활자는 수영사의 활자 견본집에서만 소개하고 있는 점으로 수영사에 의한 제작이라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우나 『수영체 연구(秀英體研究)』의 저자 가타시오 지로(片塩二郎)는 자신의 저서에 ‘이 시기의 수영사 활자 견본집에 등장하는 한자, 가나의 활자는 아직 츠키지 활판제조소의 것을 그대로 소개 한 경우가 많아 수영사의 독창성을 찾기가 어렵다.’라 서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한자와 가나의 제작도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시기에 한글 활자를 제작하고 있었다고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워 결국 이 5호 활자(S) 역시 츠키지 활판제조소에서 제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수영사의 5호 활자는 붓글씨의 특징을 띠고 있으나, 3호 활자 성서체와 같은 예서체, 또는 돋움체에 가까운 형태를 보인다. 전체적 글꼴의



그림 15. 『활판견본첩 미완(活字見本帖 未完)』(1896) 수영사의 활자견본집에 소개된 5호 한글 활자(S). ‘5호 조선문자’ (발췌 『수영체 연구』)

표정에 통일감이 없고 활자 간의 균형이 흐트러져 있어 글꼴의 조형적 측면으로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그친다. 특징이라면 새 활자 시대의 글꼴 중 가장 정사각들의 레이아웃이 강조된 글꼴로, 필서체 글꼴로서는 자본의 제작에서부터 상당히 활자의 기능성을 의식한 듯하다.

이 시대의 활자 견본집은 기본적으로 조선어 문장의 일부를 활자로 조판하여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본 활자가 사용된 견본집은 단지 한글의 여러 음절을 나열하고 있을 뿐 언어로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견본집 내에서 소개하고 있는 음절 대부분이 중복되고 있어, 본문용 활자로서 충분한 자 수가 확보되어 있었는지 역시 명확하지 않다. 당시는 여러 종의 5호 활자가 글꼴의 구분 없이 섞여서 사용되던 시기로 수요가

많은 음절의 활자들을 수영사에 별도로 의뢰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국내의 서적에 사용된 뚜렷한 예는 찾을 수 없었으나,<sup>20</sup> 지속적인 제조/광고를 했던 점으로부터 일본 내에서 본문용 외의 작은 활자로서 활용되었다 분다.

이 외에도 새 활자 시대 초기에는 제작자와 출처가 불분명한 많은 5호 활자들이 뒤섞여 사용되고 있었다. 물론 이들 5호 활자들을 각각 완성된 한 세트의 활자라 보긴 어려우나, ‘글꼴’이란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기 전의 시기임을 고려하면 그리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은 아니다. 이처럼 새 활자 시대 초기의 5호 활자는 글꼴 형태의 콘셉트보다 사이즈 상으로 공유되는 실용성 중심으로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초기의 5호 작은 활자들은 1900년대로 들어서며 비로소 현재의 본문용 글꼴에 근접한 활자로 정립된다.

#### 8. — 6호 활자(2.8mm)

##### 『노동야학독본』의 6호 한글 활자

새 활자 시대에 사용된 가장 작은 한글 활자로는 6호 활자를 들 수 있다. 율희 2년(1908) 7월 경성일보사에서 인쇄된 교과서 『노동야학독본1 (勞動夜學讀本一)』에는 6호 한글 활자가 사용되고 있다. 또한, 같은 연도에 신문관에서 출간된 잡지 『소년(少年)』에도 같은 활자가 사용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이미 작은 크기의 6호 활자가 일반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꼴은 6호 활자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반적인 6호(약2.8mm) 크기보다 작게 설계되어 있어 한 벌의 글꼴 내에 많은 글자가 7호(약 1.85mm)에 가까운 크기를 띠고 있다. 매우 작은 활자로서 본문용으로는 쓰임이 보이지 않으며, 주로 한자의 음독 표기용으로만 사용되었다. 글꼴의 특징으로는 해서체를 의식하고 있으나, 판각 수준이 뒷받침되지 못해 마치 목판인쇄물에서 보이는 글꼴의 표정을 느낄 수 있다. 기존의 한글 활자들과 비교할 때 조형적 면으로 상당히 완성도가 부족한 활자이나, 크기가 작아진

七	四	二	一	頁	普通學校朝鮮語讀本卷五訂正表
七	二	五	〇	行	
九	末	一	二	原	文
臺	帝	日	明	縣	
灣	國	露	衆	會	訂
	總	戰	議	院	
	領	爭	院	會	正
	事	이	議	會	
	館	가	院	會	文
		가	院	會	

그림 16. 한자의 혼독으로 사용된 6호 한글 활자

점을 고려한다면 그리 큰 결함은 아니라 본다.

이 활자의 재미있는 점은 한글이 가진 알파벳으로서의 특징, 다 언어의 발음에 대응할 수 있는 문자로서의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예로 한글 새 활자로서는 처음으로 국제화적인 문자 사용법이 시도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시대적인 배경으로 볼 때 한반도는 일제의 영유권에 있었으며 같은 한자문화권이긴 했으나 읽는 방식에서는 전혀 다른 발음을 취하고 있었다. 본 활자는 이와 같은 환경의 차이를 한글의 기능성으로 해결하고 있다. 『조선어독본 권5』(1934)의 표지 내면에는 원문의 수정을 표기한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권5 정정표’를 딱지식으로 첨부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어에 없는 일본어 발음을 6호 한글 활자로 표기하고 있다. <그림16>

6호 한글 활자의 명확한 제작배경은 알 수 없으나, 총독부의 기관지를 발행하던 경성일보사 외에 민간 인쇄소에도 폭 넓게 보급되어 있었으며, 매체를 가리지 않는 여러 분야에서 그 쓰임을 찾아 볼 수 있다.

## 주

- 01 — 히라노활판은 모도키 쇼조(本木昌造)가 도입한 서구식 활판술을 중국, 한반도로 수출한 동양자본 최초의 활자 제조 회사로서 이후 나가사키, 도쿄로 이전하여 츠키지 활판제조소(築地活版製造所)로 정착되었다.
- 02 — 경향신문 1975.02.08
- 03 — 시대적으로 당시의 활자들은 일본의 활자 회사에 제조를 의뢰했던 시기였으며, 한글 자본을 쓴 최지혁은 활자 제조기술자가 아닌 천주교 순교자였다. 또한, 당시의 한글 활자들이 레터링에 의한 방식이 아닌 육필에 의한 글자를 그대로 활자화했던 방식으로 미루어, 자본의 제작 당시 '호'라는 활자 규격의 개념이 고려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한글 활자에 호라는 개념이 정착된 시기를 명확히 짚을 수는 없으며, 큰 글자, 중간 글자, 작은 글자의 단위로 써낸 자본을 일본식 호의 규격에 맞추어 상품화한 것이 초기 활자의 호의 개념으로 자리 잡혔다고 볼 수 있다. 근접한 호 크기에 맞추기가 양호한 작은 글자에 반해(작은 글자는 활자 내 여백의 조절만으로도 한 단계 위 아래 크기의 호 크기로 조절할 수 있다), 큰 치수로 갈수록 규격 사이즈로의 정리가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최지혁체 2호 활자는 기존 2호 활자의 보다 사이즈에 비해 글자의 크기가 다소 작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또한 같은 이유라 생각된다.
- 04 — 활자용 글꼴은 어떤 글자와도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매뉴얼상의 조절이 필요하지만, 새 활자 초기에는 붓으로 쓴 손 글씨를 그대로 조각/활자화 했기 때문에 글꼴의 특징으로는 손 글씨의 복사본과 다름 없었다.
- 05 — 본 1호 활자(T)와 3호 교과서체 활자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3호 활자를 전개하는 장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 06 — 1889년 오사카 창업의 활판인쇄소
- 07 — 본 논문에서는 이미 이 활자의 글꼴 명으로서 고유명사화되어 있는 '최지혁체'란 이름으로 진행한다.
- 08 — 1902년 오사카 창업의 활판인쇄소
- 09 — 활자의 제작에는 자모제작에 필요한 종자의 조각만 해도 방대한 시간이 소요되며, 여기에 자모제작, 주조 작업 등을 포함한다면 몇 개월 만에 한 세트의 활자를 만들어내기란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 10 — 붓으로 직접 쓴 필기에 의한 자본의 글꼴
- 11 — 기획에 의한 디자인, 또는 레터링된 글꼴
- 12 — 1876년 도쿄 창업의 활판인쇄소
- 13 — 경향신문 1975.02.08
- 14 — 이는 자본 제작의 수준, 필기구의 종류, 판각 수준 등의 이유를 들 수 있다.
- 15 — 이에 대해서는 보다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기존의 5호 활자들과 달리 본문용 가로쓰기 글꼴로 제작된 배경에는 필기구의 영향도 크다고 본다. 붓의 특징이 뚜렷하지 않은 점, 최지혁이 서구 문물에 익숙한 인물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이 5호 활자(C)의 자본은 무딘 펜촉에 의한 자본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16 — 한글 내의 음소를 따로 주조하여 필요한 음절별로 조립하여 조판하는 활자. 분합활자(Divisible Type)
- 17 — 본 건본장을 소장하고 있는 일본 인쇄 도서관측은 1912년 전후의 인쇄물로 추정하고 있다.
- 18 — 회사명인 '初田'은 일본 성씨의 하나로 일본인들은 업소명으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 발음 '하즈다'
- 19 — 박경서체 4호 활자와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볼 수 있다.
- 20 — 『년주성교례규』(1901)에 본 5호 활자(S)와 흡사한 글꼴이 소수 등장하지만, 단서가 되는 활자 수의 부족으로 동일 활자로 판정 할 수는 없었다.

## 참고 문헌

### — 국내 문헌

- 석금호, 『타이포그래픽 디자인』, 미진사, 1994.12.30  
안상수·한재준·이용제, 『한글 디자인 교과서』, 안그래픽스, 2009.8.24  
이종국, 『한국의 교과서상』, 일진사, 2005.03.30

### — 해외 문헌

- 板倉雅宣『vignette 号数活字サイズの謎』朗文堂 2004.3.18  
板倉雅宣『活版印刷発達史 東京築地活版製造所の果たした役割』財団法人 印刷朝陽会 2006.10.15  
片塩二郎『秀英体研究』大日本印刷 2004.12  
小宮山博史『日本語活字ものがたり』誠文堂新光社 2009.1.23  
小宮山博史 外『活字印刷の文化史』勉誠出版 2009.5.4  
後藤吉郎+小宮山博史+山口信博『レタリング・タイポグラフィ』武蔵野美術大学出版局 2002  
府川充男『聚珍録』三省堂 2005.2.23

### — 관련 연구

- 김진평, 『한글 글자체 변형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 논문집, 1985.6  
劉賢國『韓国最初活版書「文光書院」中国におけるその動向』日本デザイン学会 2009

### — 웹사이트

- 대한 인쇄 문화협회 <http://www.print.or.kr/>  
디지털 한글 박물관 <http://www.hangeulmuseum.org/>

## 초록

19세기 말기의 한글 새 활자는 한반도 주변국을 거점으로한 선교 활동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주로 일본 요코하마의 히라노 활판에서 주조되었다. 성서 제작을 목적으로한 민간의 의뢰로 제작된 활자가 대부분이어서 전체적인 글꼴의 완성도는 높지 않으나, 이후 본문용 글꼴의 원형을 만드는데 크게 공헌했다. 이러한 한글 새 활자들이 본격적인 글꼴의 개념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20세기로 접어들 이후였다. 패밀리 개념으로 사이즈가 구분되고 인쇄물 내에서도 각 글꼴이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명확해진다.

이 시대의 활자크기는 기본적으로 호(號) 사이즈로 제작되었으나 규격사이즈에 맞추어 양식화된 글꼴이 아니라 육필의 자본이 그대로 활자화되어 자간이나 행의 흐름에 다소 어색함이 보인다. 또한, 활자의 구조상으로는 근대식 연활자의 방식을 따르고 있으나 초기에는 호 사이즈의 규격이 무시된 예도 있어서, 새 활자의 보급이 늘어감에 따라 활용이 어려워진 활자도 있었다.

활자의 제작 목적이 선교 활동을 위한 성서의 제작이라는 배경으로부터, 근대 새 활자를 둘러싼 많은 정보가 종교학 연구가들에 의한 증언으로 자리잡혀 있다. 그러나 타이포그래피적 관점으로는 모순되는 점이 다수 눈에 띄어 오늘날 정설로 자리잡혀 있는 내용에도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근대의 한글 글꼴에 큰 영향을 미친 최지혁체 패밀리(1호, 2호, 5호) 중 1호와 2호 활자는 글꼴의 조형적 특징 외에 시대적으로도 많은 모순점이 보여, 당시의 가톨릭세력 내에 활자의 자본을 제작한 또 다른 인물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작은 크기인 5호 사이즈 활자는 많은 종류가 유통되고 있었으나 초기의 5호 활자들은 대부분이 조잡한 글꼴에 그치고 있었다. 1900년대에 들어 비로소 본문용으로도 손색없는 글꼴들이 등장하며, 1920년대에는 아주 높은 완성도의 바탕체형 활자도 등장한다.

이처럼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친 한글 글꼴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여러 부분이 베일에 가려진 상태이며 많은 해결 과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앞으로도 지속된 조사를 진행하며, 더욱 세부적인 부분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미 국외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국제화적 문자로서, 한글이 현재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걸어진 발자취가 앞으로의 글꼴 개발에 좋은 방향성의 정보로 작용되길 바란다.

## Abstract

Hangul type was developed towards the end of the 19th century for the aim of missionary activities in and around the countri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Type were mainly cast in Japan at Hirano press in Yokohama. Most of the type was requests from private firms for the aim of creating bibles, but although the finished product was not of a high quality on the whole, they contributed greatly as the original forms of type for letterpresses in later generations. The type sizes are divided into families and the uses for each type within printed materials can be clearly seen.

It was common for type in this period to be created in the Ho size. However, this was not a font that was created along a standard size, and because it was more often than not the case that text written using a brush were made into type as is, one can see slight unevenness in the spaces between words and lines. In addition, although modern metal type methods were used for the type structure, in the beginning, the Ho size standard was often ignored and there were types whose use became increasingly difficult as new forms of type began to spread.

Because of the background behind the main reason for creating type being for printing bibles for missionary activities, a vast amount of information surrounding modern type has been established from the testimonies of religious researchers.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typography, there are also many contradictory points and there is currently the need for various reexaminations of even details that are considered established theory. In particular, in the Choe ji-hyeok font family (1 Ho, 2 Ho, 5 Ho), which had a substantial impact on modern Hangul fonts, there are many contradictory elements in the 1 Ho and 2 Ho type fonts when looked at from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font as well as the period in which they were created. There may have been people among the catholic influences at the time other than Choe ji-hyeok who created the Hangul fonts.

Although there were many varieties of the smaller 5 Ho size types that were circulated, almost all of the early 5 Ho type stopped their developments before they could fully mature. It wasn't until the 1900s that fonts that could be used for main text appeared, and starting in the 1920s, the Batang font type appeared with its high level of development. As can be seen, the majority of the development of Hangul type from the latter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remains unclear and there are still many issues that need to be resolved.

Along with continuing investigations, this research plans to focus on more specific details. As an alphabet that is gaining attention internationally, we hope that the trail that leads up to Hangul in its current form will become information that will provide effective direction to the future development of Hangul.